

제8회 KT&G 상상실현 콘테스트 - 수기 부문

작품 제목
해봉이여 영원하라 - 제 36차 아름드리 해외봉사단 3조 조장 이동호 -
수기작성 (공백포함 5,000자 이내)
<p>2017년 7월 7일 우리는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캄보디아로 떠났다. 2013년 말 협력동아리 대표로서 KT&G복지재단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군 제대 후 4년만에 36차 해외봉사 단원으로 지원하게 된 나는 바라고 바랬던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었다. 어찌 보면 활동시작이래 해외봉사 가는데 4년이 걸렸으니 나름 지금까지 달려온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마음이 앞서면서도 설레기 시작했다. 5월 19일부터 20일 36차 아름드리 해외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는 4개조 중 3조 조장이 되었다. 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여러 일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낯선 환경으로 가야 되는 만큼 책임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은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진다고 했던가, 3조 조원들과 2달여간 밤을 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하고 기나긴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자신감과 유대가 생겼고 우린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많이 부족했던 조장을 열심히 도와준 3조 조원들, 해외봉사를 준비 모임들에 모두 나와 자리를 지켜주었고 준비가 수월하게 진행되다 보니 모두가 힘을 합쳐준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마웠다. 또 준비기간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조장들 얘기가 빠질 수가 없다. 1,2,3차에 걸쳐 검토가 진행되다 보니 한창 계획서 검토 막바지에는 시험기간이 겹쳤다.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조장 단체 토크방은 시험 공부, 계획서 검토를 하면서 식을 줄 몰랐고 4명 다 잠은 못 잤지만 이때만큼은 서로의 유대감이 우리를 지탱해주던 힘이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순간 이었던거 같다. 서로 다독여가며 일하던 그때도 너무 그립지만 이 당시에는 빨리 캄보디아로 가고 싶었기에 그런 고생들을 뒤로 하고 리허설과 물품정리까지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출국일, 다들 왁자지껄 떠들며 비행기를 타고 엔진소리에 설레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베트남을 경유해서 캄보디아에 착륙했고 그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봤던 노을 지던 풍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다.</p>



다들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속에서 숙소에 도착했고 첫날 여유가 좀 있었지만 나는 조장으로서 내일 첫 수업의 시작 끊어야 하는 입장, 긴장되면서도 떨리기 시작했다. 첫 수업이었던 이름표 만들기 수업, 긴장된 모습 속에서 준비했던 만큼 보여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 속에 마쳤던 첫 수업 때문에 스스로 자책했지만 조원들은 달랐다. 모두가 다가와 “첫 수업인데 정말 고생 많았다고.”, “시작 잘해줘서 다들 잘할 수 있을 거 같다고. 그렇다. 우리는 하나였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해온 모든 것이었기에 우리는 공감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기로 마음을 같이 했다. 봉사 첫날 수업이 끝나고 마음이 좀 놓였다. 남은 7일 동안의 교육봉사도 해 볼만 할 거 같았고 첫 날이라 힘들었지만 다들 활동 중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시작한 마니또 편지를 쓰는데 열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서 재미있기도 했다. 본격적인 노력봉사는 이틀째부터 시작했는데 페인트 칠 작업을 하기 위한 선행 청소 작업 이후 각자의 위치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붓질을 하면서 칠했던 건물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름다운 건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도서관 건축 작업은 오전 내내 몸만 쓰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다들 일이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고 그대로 수업을

들어가고 했다. 5일차 작업은 최고로 힘들었던 날이 아닌가 싶다. 돌을 나르고 삽질하는데 시간은 야속하게 가지도 않고 묵묵히 작업만 하던 도서관 팀, 그날 저녁 전체 피드백 회의를 할 때 노력봉사 부분에 대해 발표하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할말을 잊지 못했다. 진짜 고생밖에 안 떠올랐기에... 사람들이 옆에서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울었지만 우는 척하기로 했다. 중간에는 식사당번을 하루 하기도 했는데 우리 식'4'팀 콤비는 자비가 없었다. 다들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쇼핑하는 것까지 너무 잘 맞고 서로가 도와주며 챙기고 부채질 해주다 보니 톱니바퀴가 굴러가듯 척척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식사당번도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계속 지나가는 나날 속에서 교육봉사, 노력봉사, 식사당번 각자의 역할을 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었다. 일을 하면서 힘들었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잠을 덜자고 낮선 환경에서 지내던 해봉이들은 점차 지쳐갔고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아쉬운 부분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우린 하나였기에, 일이 끝나면 서로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쉬는 시간 중간 중간에 춤 연습을 하면서 힘든 마음을 다 같이 날렸고 아이들의 미소를 바라보며 모두가 다 같이 웃었고 서로서로의 수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고 마니또 미션을 수행하면서 서로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었고 일과 수업을 하고 온 해봉이들에게 식사당번들은 각자의 컨셉과 메뉴를 잡고 즐겁게 해주었으며 서로서로가 각 자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파이팅 해주었기에 해봉이 모두가 너무 소중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하나였기에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작업에 속도가 붙고 수업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완성되어가는 우리들의 결과물들도 기대를 높여가고 있었다. 완성된 벽화는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도서관이 완공되었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느덧 봉사 8일차를 넘어 막바지 운동회를 맞이했다. 3조였던 운동회팀장님 고생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더니 대신 눈물이 앞을 가렸다. 먹구름이 잔뜩 끼 비가 올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고 아이들의 학예회, 운동회, 그리고 해봉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준비했던 아이들을 위한 무대를 끝으로 운동회가 끝났다. 그때부터 슬슬 해봉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 했던 거 같다. 교실에 모여 아이들과 작별인사 하는 시간, 8일동안 정들었던 아이들을 뒤로하고 가려 하니 마음이 찢하긴 했지만 고학년들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울지는 않았다. 그래도 다른 조는 눈물바다였기에 조금은 울어줬으면 했는데... 아쉬움과 그리움을 간직한 채 추억을 같이 했던 아이들과 통역사 선생님들께 작별 인사를 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이들아, 너희들과 함께였기에 더욱 더 소중한 추억이었고, 우리에게 환하게 웃어 주던 너희들, 우리에게 꽃을 가져와 머리에 꽂아주던 너희들, 우리를 따라 뛰어오면서 반갑게 안아주던 너희들, 너희들이 있었기에 더욱 더 값진 시간이었다. 애들아 사랑해’



숙소로 돌아와서 처음 나간 캄보디아 거리, 고기를 실컷 먹고 모두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지금까지의 좋았던 추억, 힘들었던 추억을 모두 간직한 채 문화탐방의 날을 맞이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캄보디아 관광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많은 사진들을 남겼던 앙코르와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게 해주던 툭툭이, 여러 유적지를 돌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고 모두 오랜만에 맞는 휴식 시간에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먹으며 우리만의 추억을 쌓아나갔다. 특히 우리 3조는 뭉치고 흩어지는 게 어찌나 빠르던지 사진만 찍으려 하면 어디서 나타나 단체사진을 찍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덕분에 수많은 사진, 수많은 추억, 수많은 인연들을 간직한 채 문화탐방의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캄보디아의 팝 스트리트는 문화충격의 현장이었고 마사지 받는 시간은 해봉이들과 여러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귀국하기에 앞서 받다 보니, 단순히 마사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고생했다는 의미의 '휴식' 이었던거 같다.



이렇게 캄보디아 해외봉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다. 처음 시작은 두근거렸고 힘든 나날을 거쳐 캄보디아에 도착하면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내 온 우리, 힘들었지만 힘들었기에 더욱 의미 있고 소중했던 이 시간들,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꺼풀 더 벗어 던지면서 나를 진지해졌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7월 19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고 한국에 도착한 뒤의 미래를 나누며 다 같이 잠들었던 36차 해봉이들, 한 여름밤의 꿈처럼 우리의 해봉이들의 청춘, 제 36차 아름드리 해외봉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날이 좋아서 다 같이 웃고 떠들며 청춘을 불태웠고 날이 안 좋아서 서로 우산을 씌어주고 날라가던 빨래들을 붙잡으며 들어오고 날이 적당해서 좋은 사진들을 많이 남기고 캄보디아에서의 추억을 가슴속에 묻었다. 이렇게 우리들의 캄보디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그리고 해봉이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한다.

